

공개용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프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서

(조사번호 : 구제 23-2024-6호)

2024. 12. 19.

무 역 위 원 회

## 무 역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의결 제2024-23호

조 사 번 호 구제 23-2024-6호

조 사 건 명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신 청 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 (마곡동)

대표자 김 영 범

대리인 법률사무소 학훈

담당변호사 김학훈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한동운

피 신 청 인 < 중국 >

1. 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형허)<sup>1)</sup>

2. Ningbo Yonghua Resin Co., Ltd. (용화)

3. 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텐  
진루화)

4. 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우한루화)

5. 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 (진하이)

6. 그 밖의 공급자

< 대만 >

1. Yuen Liang Industrial & Co., Ltd. (웬량)
2. Chuen Huah Chemical Co., Ltd. (추엔화)
3. 그 밖의 공급자

조 사 대 상 물 품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HS 코드 : 3911.10.1000

의 결 일 2024. 12. 19.

상기 안전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등 관련 규정과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주 문

1. 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 석유수지의 덤핑사실과 이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한다.
2. 위원회는 석유수지의 덤핑사실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7.1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9항제2호에 따라 피신청인별로 다음과 같은 율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

1) 각 피요청인의 주소는 “[별지] 피요청인의 주소”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중국의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55%  
    텐진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5.66%  
    진하이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4.45%  
    그 밖의 공급자 : 5.66%
- 대만의 아로켄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07%  
    추엔화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8.52%  
    그 밖의 공급자 : 7.07%

## 이 유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이하 “신청인”)가 2024.5.31. 신청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건(조사개시 : 2024.8.2.)에 대하여, 무역조사실(이하 “조사실”)은 신청인, 공급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질의서에 의한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개최,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이하 “예비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예비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WTO 반덤핑협정 제3.1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고, 주문과 같이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에 의한 본조사를 개시하며,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 I. 배경

신청인은 2024.5.31.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조사실은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2024.8.2. 관보에 게재하였다.

국내생산자는 신청인 이외에 한화솔루션 주식회사(이하 “한화솔루션”)가 있으며, 조사실은 국내생산자에 대하여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통관자료상 수입물량 등을 고려하여 중국의 ‘형허’, ‘용화’, ‘텐진루화’, ‘우한루화’, ‘진하이’ 등 5개사와 대만의 ‘웬량’, ‘추엔화’ 등 2개사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고, 해외공급자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실은 삼간교역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솔캠, 주식회사 유창에프씨, 에버캠 주식회사, 헨켈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정석케미칼, 주식회사 대양산업 등 국내 수입자와 수요자에 대해서도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 II. 조사대상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 1. 조사대상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과 제3항은 무역위원회가 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보에 게재된 무역위원회공고 제2024-13호(2024.8.2.)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의 품명은 석유수지 (Petroleum Resin)이고, 관세품목분류(HSK)는 3911.10.1000이다.

예비조사보고서<sup>2)</sup>에 의하면, 조사대상물품의 조사범위는 나프타(Naphtha)의 열분해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올레핀<sup>3)</sup>이나 디올레핀<sup>4)</sup>을 함유한 C5<sup>5)</sup> 및 C9<sup>6)</sup> 유분(溜分) 또는 디사이클로펜타디엔(DCPD)<sup>7)</sup>을 단일 또는 혼합 투입하여 중합<sup>8)</sup>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수지이다. 다만 연화점(녹는점)이 130℃ 이상인 C9 석유수지는 조사신청물품에서 제외한다.

### 2. 국내 동종물품

2) 예비조사보고서 pp.3-5 참조.

3) 올레핀이란 천연가스나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불포화 탄화수소를 의미함

4) 디올레핀이란 탄소의 이중결합된 화학물을 의미하며, 다이올레핀(diolefin)이라고도 불림.

5) 나프타(Naphtha) 크래킹시 추출되는 기초유분 중 다섯 개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임.

6) 나프타(Naphtha) 크래킹시 추출되는 기초유분 중 8~9 개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임.

7) 디사이클로펜타디엔은 C5 원료를 정제하여 얻을 수 있는 단량체인 사이클로펜타디엔(CPD : cyclopentadiene)을 유기반응(Diels-Alder reaction)을 통해 이량화시키 화합물임.

8) 중합(Polymerization)이란 어떤 화합물 분자가 2개 이상 결합하여 분자량이 보다 큰 새로운 화합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뜻함(즉, 고분자를 만드는 과정).

## 가. 동종물품 여부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과 WTO 반덤핑협정 제2.6조에 따르면, “동종물품”이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예비조사보고서<sup>9)</sup>에 의하면,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과 비교하여 물리적 특성, 용도, 구성요소, 제조공정, 유통경로 등 측면에서 국내 생산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물리적 특성, 용도, 구성요소, 제조공정, 유통경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검토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sup>10)</sup>에 의하면, 주식회사 위드텍은 국내제품(쿠마론수지) 생산중단으로 인하여 대만 웬량의 C9제품(모델명 SK-100)을 수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신청인이 생산중단한 쿠마론수지는 조사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주식회사 위드텍이 사용하는 대만산 C9제품(SK-100)은 신청인이 생산하는 C9제품(P-90HS 또는 P-90I)으로 대체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동종물품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

9) 예비조사보고서 pp.7-9.

10) 예비조사보고서 p.8.



질, 소비자 평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말하는 바, 국내생산품은 조사대상물품과 물리적 특성, 용도, 제조공정, 유통경로, 품질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상업적으로 대체가능한 동종물품으로 판단한다.

### Ⅲ. 국내산업의 범위 및 비밀취급

#### 1.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과 WTO 반덤핑협정 제4.1조에 따르면,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하지 않은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보고서<sup>11)</sup>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국내총생산량 비중,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 국내생산자의 조사대상물품 수입 여부, 국내생산자의 당해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조사실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조사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2023.12.1.~2024.5.30.)에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

11) 예비조사보고서 pp.11-12.

고, 신청인의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70%대로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점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용가능한 국내산업 피해지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였고,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70%대(2023년)로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점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조사에서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국내산업”은 잠정적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신청인의 동종물품 생산사업”으로 판단한다.

## 2. 비밀취급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신청서, 조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등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보고서<sup>12)</sup>에 의하면, 신청인 등 국내생산자, 조사대상공급자, 수입자 및 수요자는 조사신청서,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이해관계인회의 의견서 등 비밀취급

12) 예비조사보고서 pp.16-19.

요청 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신청인 등 국내생산자, 조사대상공급자, 수입자 및 수요자가 비밀취급 요청 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제출한 점, 비밀취급 요청 자료가 공개될 경우 자료 제출자 및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료들을 비밀로 취급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 IV. 덤핑사실

위원회는 덤핑사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조사대상 공급자의 선정 및 조사 경과 등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공급자별로 덤핑사실 여부를 검토하였다.

##### 1. 덤핑사실 조사대상공급자 선정

예비조사보고서<sup>13)</sup>에 의하면, 조사실은 조사개시 당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서 확인된 중국의 형허, 용화, 텐진루화, 우한루화, 진하이와 대만의 웬량, 추옌화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였다.

---

13) 예비조사보고서 p.20.

선정된 모든 조사대상공급자는 조사참여 신청기한(2024.8.2.~8.23.) 내 조사참여신청서를 제출(2024.8.21.~8.23.)하여, 조사에 대한 참여 및 협조 의사를 표명하였다.

## 2. 덤핑사실 조사경과

예비조사보고서<sup>14)</sup>에 의하면, 조사실은 2024. 8. 2. 덤핑률 조사를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 (답변기한 : 2024.9.13.)을 정하여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질의서 등을 발송하였다.

중국 모든 조사대상공급자는 2024.9.5. 답변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각 연장요청 사유를 검토하여 당초 2024.9.13.이었던 답변기한을 진하이는 2024.9.20.로 연장하고, 용화 및 형허와 텐진루화 및 우한루화는 2024.9.23.로 각각 7일 및 10일 연장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중국의 모든 조사대상공급자는 연장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대만의 조사대상공급자 중 '웬량'은 2024.9.5.에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연장 사유를 검토하여 당초 2024.9.13.이었던 답변기한을 2024.9.20.로 연장하고 이를 2024.9.6. 통보하였다. 웬량은 연장된 기한인 2024.9.20.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대만 조사대상공급자 중 '추엔화'는 조사참여신청은 하였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에 대응하지 않았다.

14) 예비조사보고서 p.20.

조사실은 2024.10.21. 중국의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 ‘텐진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 ‘진하이’에게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고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 ‘텐진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 ‘진하이’는 2024.10.28.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2024.10.28. 중국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에 2차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고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는 기한인 2024.11.4. 보충질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예비판정 전 WTO 반덤핑협정 제6.2조,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2024.12.17. 이해관계인회의를 개최(온라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된 이해관계인이 덤핑조사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3.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위원회는 조사실의 덤핑사실 조사가 WTO 반덤핑협정 및 관세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 < 중국 >

##### 가.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이하 ‘피신청인’)

예비조사보고서<sup>15)</sup>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중국 저장성 및 난징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이자 수출자로서 ‘형허’, ‘용화’와 관계사 ‘형허난징’은 동일지배주주 관계사로 조사

---

15) 예비조사보고서 p.22.

대상물품의 생산·판매 및 지분관계 등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바, 단일경제실체 (single economic entity)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총매출액은 xxx백만RMB(약 xxx조원)이며 조사대상물품 매출액은 xxx백만RMB(약 xxx조원), 대한민국 수출액은 xxx백만RMB(약 xx억원)으로, 중국 내수시장, 한국 및 제3국에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하였고 내수시장에는 약 xxx천톤을 판매 하였으며, 한국에 약 xxx천톤을 수출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sup>16)</sup>,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보충질의 답변서의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검토하고,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다만, 제조원가의 경우, 용화가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주요투입요소(피페릴렌) 자료에서 관계사 공급자명과 공급사의 COP가 불일치함이 발견되어, 다른 조사대상공급자 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사(xxx)의 COP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피신청인의 제조원가를 상향 조정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합리적인 기간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등에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에 따라 질의서 송부시,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출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판정을

16) 예비조사보고서 p.24.

하는 경우,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한 다른 조사대상공급자 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사의 COP는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이며, 보충 질의를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은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답변자료를 부인하고 보충 질의에서 검증한 다른 조사대상공급자 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사의 COP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용화의 제조원가를 xxx%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신용기간의 경우 조사실은 원답변서의 입금일자와 보충질의에서 제출된 수출입금증빙일자 자료와의 불일치가 발견됨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전체 수출 거래건중 가장 긴 신용기간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합리적인 기간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등에 입수가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에 따라 질의서 송부시,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출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판정을 하는 경우,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한 조사대

상공급자의 수출 입금증빙일자 자료는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이며, 보충 질의를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은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답변자료를 부인하고 보충 질의에서 검증한 조사대상공급자의 가장 긴 신용기간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판매관리비의 경우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와 관련이 없는 영업외수익 등은 제외하였고, 단기차입금 이자율의 경우 피신청인이 원답변서에서 제출한 중앙인민은행 단기차입금 이자율(xxx%) 대신 보충답변에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형허의 회사 자체 이자율(xxx%)을 사용하였다.

피신청인은 조사실에서 제시한 CCN 분류기준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받고 CCN 구성방법 등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sup>17)</sup>를 가졌으며, 별도 의견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는 바, 조사실은 당초 제시된 CCN을 기준으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sup>18)</sup>,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내수판매에 대해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을 실시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17) 이해관계인은 관보가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 CCN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다.

18) 예비조사보고서 pp.27~29.



조사실은 통상거래가격이 확인된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고, 정상가격에서 신용비용, 포장비용을 가감하여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피신청인의 물류비용에 대해서는 내수판매 거래건별 배분 기준 및 방식 등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과 충분한 증빙이 부족하여 정상가격 조정에서 제외하였다. 신용비용은 피신청인의 판매일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날까지의 신용일수에 회사의 단기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조정하였다.

조사실은 피신청인의 대한민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내륙운반비, 창고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판매수수료 및 포장비용을 조정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신용비용의 경우 회사 단기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신용기간은 수출 입금증빙일자가 보고한 일자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수출 전체 거래건중 가장 긴 신용기간을 적용하여 조정하였다.

또한, 과세가격은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로 환산하여 적용하였으며,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7.55%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제2.4조,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2 제7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비 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 나. 텐진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 (이하 '피신청인')

예비조사보고서<sup>19)</sup>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중국 텐진과 후베이성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이자 수출자로, '텐진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들은 동일지배주주 관계사로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 및 지분관계 등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바, 단일경제실체(single economic entity)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총매출액은 xxx백만RMB(약 xxx조원)이며 조사대상물품 매출액은 xxx백만RMB(약 xxx조원), 대한민국 수출액은 xxx백만RMB(약 xxx억원)으로 중국 내수시장, 한국 및 제3국에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sup>20)</sup>,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보충질의 답변서의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검토하였다.

다만, 원가자료의 경우에는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비가 적정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사의 생산원가를 활용하여 적정 시장가격을 반영하였다.

피신청인이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주요 원재료(피페릴렌, DCPD, C5, 수소) 비용이 정상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피신청인이 i)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가격과 ii)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가격, iii)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자의 생산원가 등을

19) 예비조사보고서 p.33.

20) 예비조사보고서 pp.49~50.

검토하였다. 피신청인은 주요 원재료 중 피페릴렌, DCPD, C5, 수소 일부를 관계사로부터 구매하였으나, 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자의 생산원가보다 싸게 구매하였다.

이에 품목별로 원재료를 공급한 관계사의 생산원가 자료 중 가장 높은 생산원가 등을 사용하여, 피신청인의 제조원가를 텐진루화는 xxx%, 쓰보루화는 xxx%, 푸젠루화는 xxx%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판매관리비(SG&A)의 경우에는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와 관련이 없는 영업외수익 등은 제외하였다.

피신청인은 조사실에서 제시한 CCN 분류기준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받고 CCN 구성방법 등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를 가졌으며, 별도 의견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당초 제시된 CCN을 기준으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sup>21)</sup>,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내수판매에 대해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을 실시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정상가격 조정요소는 신용비용, 포장비용을 적용하였다. 물류비용에 대해서는 내수판매 거래건별 배분 기준 및 방식 등에 대해 원답변서 및 보충질의 답변서에서 합리적인 설명 및 충분한 증빙이 부족함으로, 정상가격 조정에서 제외하였다.

21) 예비조사보고서 pp.36~39.

조사실은 피신청인의 대한민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포장비용을 조정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또한, 과세가격은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로 환산하여 적용하였으며,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5.66%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제2.4조,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2 제7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비 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 다. 진하이(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

예비조사보고서<sup>22)</sup>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중국 저장성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이자 수출자로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여 직접 내수 및 한국, 제3국 시장에 수출하였다.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총매출액은 xxx백만RMB(약 xxx조원)이며 조사대상물품 매출액은 xxx백만RMB(약 xxx조원), 대한민국 수출액은 xxx백만RMB(약 xxx억원)으로 내수 시장에 약 xxx천톤을 판매하였으며, 한국에 약 xxx천톤을 수출하였다.

<sup>22)</sup> 예비조사보고서 p.43.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sup>23)</sup>,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보충질의 답변서의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검토하고,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다만, 신용비용의 경우 원답변서의 입금일자와 보충질의에서 제출된 수출 입금증빙일자 자료와의 불일치가 발견됨에 따라, 다른 조사대상공급자의 전체 수출 거래건중 가장 긴 신용기간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합리적인 기간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등에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에 따라 질의서 송부시,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출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판정을 하는 경우,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한 다른 조사대상공급자의 수출 입금증빙일자 자료는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이며, 보충 질의를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은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답변자료를 부인하고 보충 질의에서 검증한 다른 조사대상공급자의 가장 긴 신용기간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23) 예비조사보고서 p.44.

또한, 판매관리비(SG&A)는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와 관련이 없는 영업 외수익 등은 제외하였다.

피신청인은 조사실에서 제시한 CCN 분류기준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받고 CCN 구성방법 등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sup>24)</sup>를 가졌으며, 별도 의견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는 바, 조사실은 당초 제시된 CCN을 기준으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sup>25)</sup>,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내수판매에 대해 특수 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을 실시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통상거래가격이 확인된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고, 정상가격에서 신용비용, 포장비용을 조정하여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피신청인의 물류비용에 대해서는 내수판매 거래건별 배분 기준 및 방식 등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과 충분한 증빙이 부족하여 정상가격 조정에서 제외하였다.

조사실은 피신청인의 대한민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내륙운반비, 창고비용,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포장비용을 조정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신용비용의 경우 수출 입금증빙일자가 보고한 일자와 차

24) 이해관계인은 관보가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 CCN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다.

25) 예비조사보고서 pp.46~48.

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수출 전체 거래건에 대해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의 신용기간을 적용하여 조정하였다.

또한, 과세가격은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로 환산하여 적용하였으며,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4.45%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제2.4조,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2 제7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비 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 라. 그 밖의 공급자

예비조사보고서<sup>26)</sup>에 의하면, 조사실은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 물량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5.66%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9.4조의 (i)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고 결정한다.

#### < 대만 >

---

26) 예비조사보고서 p.50.

가. 아로켄(Arochem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sup>27)</sup>(이하 '피신청인')

예비조사보고서<sup>28)</sup>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대만 가오슝에 소재하고 있으며, 아로켄은 생산자이자 내수판매자이며 관계사인 웬량은 아로켄의 수출판매사이다.

'아로켄'과 관계사 '웬량'은 공통 주주 및 이사회 구성원이 있고, 사무실을 공유하는 관계사로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 및 지분관계 등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바, 단일경제실체(single economic entity)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총매출액은 xxx백만NTD(약 xxx조원), 조사대상물품의 매출액은 xxx백만NTD(약 xxx조원), 대한민국 수출액은 xxx백만NTD(약 xxx억원)으로, 내수 시장에 약 xxx천톤을 판매하였으며, 한국에 약 xxx톤을 수출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sup>29)</sup>,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보충질의 답변서의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검토하고,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조사실에서 제시한 CCN 분류기준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받고 CCN 구성방법 등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sup>30)</sup>를 가졌으며, 별도 의견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는 바,

27) 웬량은 아로켄의 수출관계사로서 생산자이자 판매자인 아로켄을 대표로하고 웬량은 관계사로 표기하였다.

28) 예비조사보고서 p.52.

29) 예비조사보고서 p.54.

30) 이해관계인은 관보가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 CCN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다.



조사실은 당초 제시된 CCN을 기준으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에 의하면<sup>31)</sup>,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내수판매에 대해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을 실시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통상거래가격이 확인된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고, 정상가격에서 조기지급할인액, 금액조정, 내륙운반비,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수수료 및 포장비를 조정하였다.

조사실은 덤핑가격에서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수수료 및 포장비용을 조정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또한, 과세가격은 대한민국수출 시 CIF 조건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실제 수출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7.07%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제2.4조,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2 제7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비 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31) 예비조사보고서 pp.55~56.

## 나. 추엔화(Chuen Huah Chemical Co., Ltd.) (이하 '피신청인')

예비조사보고서<sup>32)</sup>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조사개시 당시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어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덤핑조사질의서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이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동부속서2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 통관자료 및 조사신청서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조사대상공급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수가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바,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가능하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2023.8.2.~9.13.)을 정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조사당국이 이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판정을 내리는 경우,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덤핑가격 산정에 사용된 수입통계는 조사대상기간 중 독립된 기관인 관세청 통관자료로 공식 수입통계에 해당하고 정상가격은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인 신청인의 신청서 자료로, WTO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인 출처로 신청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은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sup>32)</sup> 예비조사보고서 p.60.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덤핑률은 WTO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 2,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로서 관세청 통관자료와 조사신청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sup>33)</sup>에 의하면, 과세가격은 수입통관가격(CIF)을 적용하였으며,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18.52%의 예비덤핑률이 산정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제2.4조,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2 제7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비 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 다. 그 밖의 공급자

예비조사보고서<sup>34)</sup>에 의하면, 조사실은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7.07%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 제9.4조의 (i)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고 결정한다.

33) 예비조사보고서 p.62.

34) 예비조사보고서 p.63.

## V. 국내산업의 피해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제3.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고, (a) 덤핑수입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b)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해야 하며, 덤핑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덤핑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수입품에 의하여 상당한 가격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상당한 정도로 가격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제3.4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비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덤핑물품 수입의 물량 및 가격 효과와 국내산업의 생산량 및 가동률, 판매량

및 재고, 시장점유율, 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 효과 포함), 이윤, 투자수익률, 현금 흐름, 고용 및 임금, 생산성, 성장성, 자본조달능력,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 1. 덤핑물품의 누적 평가 적용 여부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르면,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해당 WTO반덤핑협정 제3.3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위원회는 위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본 조사건의 누적평가 적용 여부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기로 한다.

### 가. 덤핑물품의 미소덤핑마진 및 미소수입물량 조건 충족 여부

예비조사보고서<sup>35)</sup>에 의하면, 덤핑물품의 공급국별 예비덤핑률은 각각 중국산 4.45 ~ 7.55%, 대만산 7.07 ~ 18.52%로 미소덤핑마진 기준인 2% 이상이며, 조사대상물품의 총수입물량 대비 덤핑물품의 국가별 수입물량 비중은 덤핑률 조사대상기간(2023.1.1~2023.12.31.) 동안 중국산 xxx%, 대만산 xxx%로 미소수입물량 기준인 3% 이상이므로, 위원회는 덤핑물품의 미소덤핑마진 및 미소수입물량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한다.

35) 예비조사보고서 p.67.

## 나. 경쟁조건의 판단기준

조사실은 덤핑물품의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덤핑물품 상호간 및 덤핑물품과 동종물품간 경쟁조건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들 간의 대체사용 가능성, 유통채널의 유사성, 같은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다. 덤핑물품간 경쟁조건

예비조사보고서<sup>36)</sup>에 의하면, 조사실은 중국산 및 대만산 덤핑물품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덤핑물품간에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 구성요소 및 용도, 제조방법, 유통경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은 매년 국내시장으로 수입되어 판매되었으므로 같은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중 톤당 판매가격을 보면, 중국산은 xxx~xxx천원, 대만산은 xxx~xxx천원으로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가격대에 있으며, 덤핑물품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가격 상승폭이 작은(연평균 2.1%) 중국산은 수입물량이 증가(연평균 16.9%p)하였으나 연평균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연평균 3.6%) 대만산은 수입물량이 감소(연평균 △9.0%)한 점 등을 볼 때, 덤핑물품은 상업적으로 상호 대체되는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6) 예비조사보고서 pp.67-68.

## 라. 덤핑물품과 동종물품간 경쟁조건

예비조사보고서<sup>37)</sup>에 의하면, 조사실은 덤핑물품은 국내 동종물품의 xxx~xxx% 수준의 저가로 판매되었고,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은 연도별 판매가격 등락의 방향도 일치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가격 상승폭이 작은(연평균 2.3%) 덤핑물품은 수입물량이 증가(연평균 14.6%p)하였으나 연평균 가격 상승폭이 큰(연평균 4.7%) 동종물품은 판매물량이 감소(연평균 △13.8%p)하여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국내생산품은 덤핑물품과 물리적 특성, 구성요소 및 용도,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유통경로 등 대부분의 요소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은 국내시장에서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마. 종합검토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중국 및 대만산 덤핑물품은 미소덤핑마진 및 미소수입물량 이상이며, 국내시장에서 덤핑물품간 상호 경쟁조건에 있고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도 상호 경쟁조건에 있으므로,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평가함에 있어서 누적적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 2. 답변서 제출 및 산업피해 분석 대상 국내 생산자

37) 예비조사보고서 p.69.

예비조사보고서<sup>38)</sup>에 의하면, 중국무역촉진위원회(이하 “중국무촉위”)는 한화솔루션에 국내생산자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생산자 답변서 제출이 어렵다면, 생산량, 가동률, 재고, 판매량, 시장점유율, 가격, 이윤 등에 대한 산업피해지표 제출을 요청하여 본건 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국내생산자 2개사 모두에 대해 질의서를 발송(2024.8.2.)하였고, 신청인만 답변서를 제출하여, 조사실은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제출자료가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고,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여부를 분석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제출자료가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대표하므로,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여부를 분석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이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 3. 덤핑물품 수입의 물량 효과

예비조사보고서<sup>39)</sup>에 따르면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2020년 1,000톤에서 2023년 1,504톤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4.6%였는바, 덤핑물품 수입물량은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다.

38) 예비조사보고서 p.70.

39) 예비조사보고서 pp.71-74.



한편,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2020년 xxx%에서 2023년 xxx%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18.4%p 상승하였으나, 동종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2020년 xxx%에서 2023년 xxx%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14.1%p 하락하였다. 이외에도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20년 xxx%에서 2023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4.3%p 하락하였다.

조사대상기간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연평균 14.6% 증가하여 국내소비(연평균 3.3% 감소)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시장점유율 또한 확대(18.4%p 상승)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종물품의 판매량(연평균 13.8% 감소)과 점유율(14.1%p 감소)은 국내소비보다 더 많이 감소하여,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상대적인 증가가 확인되었다.

#### 4. 덤핑물품 수입의 가격 효과

예비조사보고서<sup>40)</sup>에 따르면,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20년 1,000천원, 2021년 1,015천원, 2022년 1,124천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23년 1,070천원으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3% 상승하였다. 한편,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20년 1,000천원, 2021년 1,023천원, 2022년 1,178천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23년 1,148천원으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4.7% 상승하였다. 그에 따라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은 국내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되었으며, 판매가격 등락의 방향이 일치하고 있어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40) 예비조사보고서 pp.75-78.

한편,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 대비 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 수준으로 전체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되었다.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하락시켰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2021년과 2022년까지 상승하고, 2023년 4.8% 하락하여 연평균 2.3% 상승하였다. 한편,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도 2021년과 2022년까지 상승하고, 2023년 2.6% 하락하여 연평균 4.7% 상승하였다.

조사실은 2023년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xxx% 수준으로 저가로 판매되었고,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전년대비 4.8% 하락하여 국내 동종물품은 전년대비 2.6% 하락시켰다고 검토하였다.

중국무축위는 2021년 덤핑물품 판매가격 상승률은 동종물품 판매가격 상승률보다 높고, 2022년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동종물품 판매가격이 15.2% 상승하였으며, 2023년 덤핑물품 판매가격 하락률은 동종물품 판매가격 하락률보다 낮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2021년과 2022년 국내 동종물품의 제조원가가 전년대비 각각 15.4%, 29.5% 상승하였으나, 덤핑물품 판매가격이 전년대비 각각 1.5%, 10.7% 상승하여 국내 동종물품은 전년대비 각각 2.3%, 15.2% 상승에 그쳐 제조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2023년에는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전년대비 4.8% 하락하여 국내 동종물

품 판매가격을 전년대비 2.6% 하락시킨 것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목표판매가격 대비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 판매가격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은 목표판매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실의 분석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하락 및 가격상승 억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 5.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1) 생산량 및 가동률

예비조사보고서<sup>41)</sup>에 따르면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능력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간 1,000톤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2020년 1,000톤에서 2021년 1,074톤으로 7.4% 증가하였으나, 2022년 987톤으로 8.1%, 2023년 781톤으로 20.9%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7.9%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산업 가동률은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로 상승했으나, 2022년 xxx%, 2023년 xxx%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17.9%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무축위는 국내산업의 생산감소원인에 대해 ①신청인의 수출감소가 주원인이고, ②2019년 11월 한화솔루션의 상업적 생산개시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41) 예비조사보고서 pp.79-80.

신청인은 ①내수판매 비중에 비해 내수판매물량 감소가 수출물량 감소보다 더 크고, ②조사신청을 위해 한화솔루션에 조사신청에 대한 의견 조회 및 조사참여 여부 확인을 위해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한화솔루션에서는 국내판매량이 크지 않아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①조사대상기간 중 신청인의 내수판매물량 감소율(연평균 13.8%)이 수출물량 감소율(연평균 4.9%) 및 생산량 감소율(연평균 7.9%)보다 훨씬 컸으며, ②중국 무측위가 한화솔루션의 부정적영향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조사실은 한화솔루션에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70%대로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여 신청인의 제출자료가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중국산 물품 수입이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4.6%(2020년 대비 2023년 50.4%)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생산량과 가동률이 하락한 것은 덤핑물품의 수입 확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 2) 판매 및 재고

예비조사보고서<sup>42)</sup>에 따르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020년 1,000톤에서 2021년 970톤, 2022년 718톤, 2023년 640톤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42) 예비조사보고서 p.81.

동안 연평균 13.8% 감소하였다. 한편, 국내 동종물품의 기말재고는 2020년 1,000톤에서 2023년 1,054톤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8% 증가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국내 동종 물품의 내수판매량이 감소하였고, 기말재고가 상승한 것은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증가한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판단한다.

### 3) 시장점유율

예비조사보고서<sup>43)</sup>에 따르면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20년 xxx% 에서 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14.1%p 하락하였다. 이에 반하여 덤핑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18.4%p 상승하였다. 이 외에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산 수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20년 xxx%에서 2023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4.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추세가 상반된 변동을 보이고 있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덤핑마진의 크기

43) 예비조사보고서 p.82.

예비조사보고서<sup>44)</sup>에 따르면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는 2020년 1,000천원에서 2021년 1,154천원으로 15.4% 상승, 2022년 1,494천원으로 29.5% 상승하다 2023년 1,464천원으로 2.0% 하락하였으나,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3.6% 상승하였다.

항목별로는 재료비 비중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xxx~xxx%로 가장 커 동종물품 가격에는 재료비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재료비는 2021년 30.1% 상승, 2022년 43.2% 상승 등 급격히 상승한 후 2023년 16.4%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5.9% 상승하였다.

조사대상기간 중 재료비는 연평균 15.9% 상승하고, 단위당 제조원가는 연평균 13.6% 상승하였으나, 덤핑물품 판매가격 상승폭이 연평균 2.3%에 불과함에 따라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연평균 4.7% 상승에 그쳐 제조원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예비적으로 억제시킨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저가 판매되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 상승을 억제시킨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예비조사보고서<sup>45)</sup>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예비덤핑률은 4.45 ~ 18.52%로 덤핑마진의 크기가 미소마진 이상이므로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덤핑마진이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에 반영됨으로써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44) 예비조사보고서 pp.82-83..

45) 예비조사보고서 p.83.

## 5) 이윤

예비조사보고서<sup>46)</sup>에 따르면 국내생산자의 동종물품 국내시장 매출액은 2020년 1,000백만원에서 2021년 992백만, 2022년 846백만원, 2023년 734백만원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9.8% 감소하였고, 내수부문 영업손익은 2020년 1,000백만원에서 2021년 727백만, 2022년 278백만원, 2023년 14백만원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75.9% 감소<sup>47)</sup>하였다. 이에 따라 내수부문 영업이익률도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26.9%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무축위는 ①신청인의 수출감소, ②2019년 11월 상업적 생산을 시작한 한화솔루션의 부정적 영향(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음), ③노무비 및 제조경비 총액 증가, ④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⑤판매관리비 증가로 동종물품의 국내판매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 검토결과, ①신청인의 내수판매 감소율(연평균 13.8%)이 수출 감소율(연평균 4.9%)보다 훨씬 높았고, ②중국무축위가 한화솔루션의 부정적영향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조사실은 한화솔루션에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70%대로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여 신청인의 제출자료가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대표할 뿐만

46) 예비조사보고서 pp.84-85.

47) 신청인의 수출 비중이 높아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 증가가 국내산업의 전체(내수+수출)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을 것이나, 내수부문 영업이익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검토되었다.

아니라 중국산 물품 수입이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4.6%(2020년 대비 2023년 50.4%)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검토되었다. ③노무비 및 제조경비 총액은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각각 0.9% 및 2.3% 증가하여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④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화물기사의 6% 남짓이고 파업참여 화물기사는 컨테이너 트레일러나 시멘트 운송하는 조합원 비율이 높았으며, 화물연대 파업이 사전 예고되어 신청인은 사전에 화물기사를 섭외하여 파업기간에도 정상적인 출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되었다. ⑤판매관리비 증가는 주로 급여 및 지급수수료 등 증가에 따른 것이며, 조사대상기간 중 판매관리비의 변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조사대상기간 중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큰 폭(22.6%p)으로 감소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덤핑물품의 수입에 따라 국내산업의 이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 6) 투자수익률

예비조사보고서<sup>48)</sup>에 따르면 국내산업의 투자자산총액 대비 영업이익으로 계산된 투자수익률은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15.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7) 현금흐름

예비조사보고서<sup>49)</sup>에 따르면 동종물품과 관련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48) 예비조사보고서 p.86.



2020년 1,000백만원에서 2021년 685백만원, 2022년 130백만원으로 순유입이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는 367백만원로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6.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덩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국내산 업의 현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 8) 고용 및 임금

예비조사보고서<sup>50)</sup>에 따르면 국내생산자의 연평균 고용인원(생산직+사무직)은 2020년 1,000명에서 2021년 1,024명, 2022년 1,034명, 2023년 1,040명으로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3% 증가하였다. 1인당 평균임금은 2020년 1,000백만원에서 2021년 1,160백만원으로 16.0% 증가, 2022년 1,061백만원으로 8.5% 감소, 2023년 979백만으로 7.7% 감소함에 따라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0.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9) 생산성

예비조사보고서<sup>51)</sup>에 따르면 1인당 생산량은 2020년 1,000톤에서 2021년 1,049톤, 2022년 955톤, 2023년 751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9.1% 감소 부정적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1인당 매출액은 2020년 1,000백만원에서

49) 예비조사보고서 p.86.

50) 예비조사보고서 p.87.

51) 예비조사보고서 p.88.

2021년 1,067백만원, 2022년 1,158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 912백만원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0% 감소하였고, 1인당 부가가치는 2020년 1,000백만원에서 2021년 678백만원, 2022년 469백만원, 2023년 449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3.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10) 성장성

예비조사보고서<sup>52)</sup>에 따르면 내수영업이익은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75.9% 감소하고, 시장점유율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14.1%p 감소하였으며, 가동률은 조사대상기간 중 17.9%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11) 자본조달능력

예비조사보고서<sup>53)</sup>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내부 자본조달능력은 악화되고 있는것으로 조사되었다.

## 12)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예비조사보고서<sup>54)</sup>에 따르면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매년 설비투자를 했는 바, 2020년 1,000백만원, 2021년 12,820백만원, 2022년 2,525백만원, 2023년 2,844백만원 등 조사대상기간 동안 설비투자 금액은 연평균 41.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2) 예비조사보고서 p.89.

53) 예비조사보고서 p.89.

54) 예비조사보고서 p.90.

연구개발의 경우, 2020년 1,000백만원에서 2021년 1,009백만원, 2022년 1,004백만원으로 감소하다 2023년 1,048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13) 종합 검토

이상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중 동종물품의 생산량 및 가동률 하락, 판매량 감소, 영업이익의 감소, 투자수익률 감소, 현금흐름 악화, 1인당 부가가치 등 국내산업피해에 관련된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국내산업 주요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실질적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직접적 가격경쟁 관계에 있는 덤핑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상대적으로 급증하였고, 시장점유율도 증가한 반면, 동종물품의 판매량과 점유율은 감소하였고, 덤핑물품이 국내동종물품의 가격상승을 억제하거나 하락을 초래하여 조사대상기간동안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비적으로 판단한다.

## 6.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덤핑수입품이 동 협정 제3.2조와 제3.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동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덤핑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조사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덤핑물품 수입의 절대적·상대적 물량 및 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 및 가격에 미친 효과(물량 및 가격효과),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의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미친 영향 등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와 덤핑물품 수입 이외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기타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 1)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예비조사보고서<sup>55)</sup>에 따르면 조사실은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와 관련하여 덤핑물품 수입의 효과(물량효과 및 가격효과)와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덤핑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의 피해 발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연평균 14.6%)했고, 국내시장 점유율도 xxx%에서 xxx%로 크게 증가(조사대상기간 중 18.4%p)하였으며, 이

55) 예비조사보고서 pp.92-94.

에 따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의 점유율은 xxx%에서 xxx%까지 조사기간 동안 14.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덤핑물품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동종물품 대비 xxx%~xxx% 수준의 저가로 판매되었고,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는 연평균 13.6%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덤핑물품 판매가격이 연평균 2.3% 상승함에 따라 동종물품 판매가격도 연평균 4.7% 상승하여 제조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동종물품 가격상승 억제 및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량 증가와 동종물품 대비 저가판매로 동종물품의 생산량 및 판매량은 대체로 하락하였고, 국내시장점유율과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 생산량은 연평균 7.9% 감소, 내수판매량은 연평균 13.8% 감소, 내수 영업이익률은 26.9%p 하락, 가동률은 17.9%p 하락했고, 1인당 부가가치는 연평균 23.4% 감소하는 등 국내산업피해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국내산업은 생산량 및 가동률의 하락, 판매량 감소 및 시장점유율 하락하였고, 영업손실이 악화되는 등 예비적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 2) 덤핑물품 수입 이외 기타 다른 요인의 영향

### 가)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물량 및 가격

예비조사보고서<sup>56)</sup>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 이외 기타국산 수입물

56) 예비조사보고서 p.97.

량은 2020년 1,000톤, 2021년 880톤, 2022년 683톤, 2023년 742톤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9.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도 2020년 xxx%, 2021년 xxx%, 2022년 xxx%, 2023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4.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산 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덤핑물품 판매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기타국산 물품의 가격 효과가 국내 동종물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과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고, 그 판매가격도 덤핑물품보다 높았으므로 기타국산 물품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

## 나) 국내소비 변화

예비조사보고서<sup>57)</sup>에 따르면 국내소비는 2020년 1,000톤에서 2021년 1,025톤으로 2.5% 증가 후 2022년 884톤으로 13.8% 감소, 2023년 903톤으로 2.2% 증가하여 전체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3.3% 감소하였다.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020년 1,000톤에서 2021년 970톤, 2022년 718톤, 2023년 640톤으로 연평균 13.8% 감소하여 국내소비의 감소율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2020년 1,000톤에서 2021년 1,248톤으로 24.8% 증가, 2022년 1,348톤으로 8.0% 증가, 2023년 1,504톤으로 11.6% 증가하는 등 국내소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57) 예비조사보고서 p.98.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4.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국내소비가 감소한 시기에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 판매량은 국내소비의 감소량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조사 대상기간 중 지속 증가하였는 바, 국내소비 감소보다 덤핑물품의 수입량 증가가 국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 다) 수출 실적

예비조사보고서<sup>58)</sup>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량은 2020년 1,000톤에서 2021년 1,053톤으로 5.3% 증가, 2022년 980톤으로 7.0% 감소, 2023년 861톤으로 12.1%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4.9% 감소하였고, 내수판매물량은 조사대상기간 중 수출물량 감소(연평균 4.9%)보다 큰 폭으로(연평균 13.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수출물량은 감소하여 내수판매물량 감소에 영향을 줄 여지가 없었고, 내수판매물량 감소율이 수출물량 감소율보다 훨씬 높아 내수판매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 라) 주요 원재료 가격추이

예비조사보고서<sup>59)</sup>에 따르면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에서 재료비가 차

58) 예비조사보고서 p.99.

지하는 비중은 xxx ~ xxx% 수준이고, 주요 원재료는 C5, C9, DCPD으로 조사되었다. C5 톤당 가격은 2020년 1,000천원에서 2021년 1,332천원으로 33.2% 상승, 2022년 1,992천원으로 49.6% 상승 후 2023년 1,672천원으로 16.1%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8.7% 상승하였고, C9 톤당 가격은 2020년 1,000천원에서 2021년 1,306천원으로 30.6% 상승, 2022년 1,990천원으로 52.3% 상승 후 2023년 1,810천원으로 9.0%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1.9% 상승하였으며, DCPD 톤당 가격은 2020년 1,000천원에서 2021년 1,265천원으로 26.5% 상승, 2022년 1,891천원으로 49.4% 상승 후 2023년 1,474천원으로 22.0%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3.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기간 중 원재료비의 변동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과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조사대상기간 중 주요 원재료비가 연평균 13.8~21.9% 상승하였음에도 조사대상기간 중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폭이 단위당 재료비 상승폭보다 훨씬 작은 4.7%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 원재료비의 상승보다는 판매가격의 상승 억제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 마) 기타 요인

예비조사보고서<sup>60)</sup>에 따르면, 위에서 검토한 사항 외에 WTO 반덤핑협정 제3.5

59) 예비조사보고서 p.100.

60) 예비조사보고서 p.101



조에 검토사항으로 열거된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양자간의 경쟁, 국내산업의 생산성 등에 관한 사항은 조사실에 제출되지 않았다.

### 3) 인과관계 종합 검토

조사실은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국의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직접적 가격 경쟁 관계에 있는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감소하였다고 검토하였다. 또한, 덤핑물품이 저가로 판매되어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은 목표 판매가격을 반영하지 못하여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상승을 억제시키거나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생산량 및 판매량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고, 가동률 및 국내시장 점유율 또한 감소 되었다고 검토하였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국내산업의 주요지표인 영업이익 급감 등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하였다.

한편, 조사실은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 및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여 국내 동종 물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고, 국내소비 감소폭보다 동종물품 판매량의 감소폭이 더 컸으며, 국내산업의 수출,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검토하였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할 때,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같은 시점에서 덤핑물품의 수입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덤핑 물품의 수입에 인한 것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다.

## VI. 잠정조치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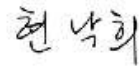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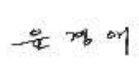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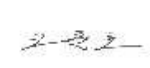
예비조사보고서<sup>61)</sup>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연평균 14.6%)하면서 국내시장 점유율도 상승(18.4%p)하였고, 덤핑물품은 동종물품 대비 xxx% ~ xxx% 수준으로 저가 판매되어, 동종물품의 가격인상 억제 및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량, 판매량은 모두 감소하였고, 가동률은 하락했으며, 국내시장 점유율 또한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영향은 결과적으로 국내산업의 영업손실 등으로 이어져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위원회는 조사기간동안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물품에 대하여 조사대상 공급자별 예비덤핑률(4.45%~18.52%)에 해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한다.

61) 예비조사보고서 p.105.

무역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2024년 12월 19일

위원장	이재형	
상임위원	양병내	
위원	이종은	
위원	현낙희	
위원	조영재	
위원	강준하	
위원	권현호	
위원	윤경애	
위원	고준호	

## 적 용 법 령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8조제8호 및 제32조
-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3조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내지 제65조 및 제71조
- WTO 반덤핑협정 제1조 내지 제6조 등

## 붙 임 자 료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

[별지] 피신청인의 주소

< 중국 >

1. 형허, 용화 및 그 관계사

(1) 형허 (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 2222 Binhai Road, Ningbo Petrochemic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 Zhejiang Province

(2) 용화 (Ningbo Yonghua Resin Co., Ltd.)

: 555 Fengming Road, Xiepu, Ningbo Chemical Industry Zone, Zhejiang Province

(3) 형허난징 (Henghe (Nanji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 168 Liuzuo Road, Changlu Subdistrict, Jiangbei New District, Nanjing

2. 텐진루화,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

(1) 텐진루화 (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 No.233 Jinyuan Road, Dagang, Tianjin Binhai New Area, China

(2) 우한루화 (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 555 Fengming Road, Xiepu, Ningbo Chemical Industry Zone, Zhejiang Province

(3) 쯔보루화 (Zibo Luhua Hongjin New Material Group Co., Ltd.)

: No. 3, Fengbei Road, Zhangdian District, Zibo, Shandong, China

(4) 푸젠루화 (Fujian Fuhua Luhua New Material Co., Ltd.)

: No. 168, Shugang Avenue South, Gulei Town, Zhangpu County, Fujian, China

(5) 상해루화 (Shanghai Luhua Chemical Technology Co., Ltd.)

: No.1525, Pudong Avenue,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China

(6) 청도루화 (Qingdao Yanggu Luhua New Materials Co., Ltd.)

: Room 314-41, 3F, East Office Building, No. 45 Beijing Road, Qianwan Bonded Port Area, Qingdao Pilot Free Trade Zone, Shandong, China

### 3. 진하이

(1) 진하이 (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

: No.2666 Binhai Road, Ningbo Petrochemic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rea, Zhejiang, China

### < 대만 >

#### 1. 아로켄 및 그 관계사<sup>62)</sup>

(1) 아로켄 (Arochem Corporation)

: No. 922, Zhongxing Rd., Yanchao Dist., Kaohsiung City 824007, Taiwan

(2) 웬량 (Yuen Liang Industrial & Co., Ltd.)

: No. 922, Zhongxing Rd., Yanchao Dist., Kaohsiung City 824007, Taiwan

#### 2. 추엔화

(1) 추엔화 (Chuen Huah Chemical Co., Ltd.)

: No.365, Daren N. Rd., Gangshan Dist., Kaohsiung City, Taiwan

---

62) 웬량은 아로켄의 수출관계사로서 생산자이자 판매자인 아로켄을 대표로하고 웬량은 관계사로 표기하였다.